

# 이문열의 『시인』에 나타난 탈영토화 양상\*

곽 상 인 (서울시립대)

## < 목 차 >

1. 서론
2. 계열화와 영토화에 저항하는 노마드적 여정
3. 탈영토화로서의 리즘적 사유와 '0'의 세계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문열의 『시인』에 나타난 탈영토화의 양상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시인』에 형상화된 김병연(김삿갓)의 노마드적 행적, 그리고 김병연이 추구했던 창작의 태도와 시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주목한 분석을 했다.

먼저 김병연은 조선의 감시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고 있었다. 공령시에서 장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에 의한 연좌제로 인해 지속적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떠돌음'은 조선이 세운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니와 조부로부터 이어진 혈연관계, 즉 계열화를 부정하기 위한 응전의 한 형태였다.

탈영토화는 김병연에게 자유로운 시 세계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었다. 조선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것은 상류층의 구미만을 맞추는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이재용 선생님의 조언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것이기예, 이를 거부하고 과감히 탈영토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결국 김병연은 어떤 기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의미화의 계열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리즘적 사유를 통해 자유로울 수가 있었으며, 무언가가 생성하는 잠재성 안에서 '0'의 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시인, 계열화, 영토화, 탈영토화, 리즘, 노마드

## 1. 서론

이문열(1948~)은 1977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가작 입선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곧이어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새하곡」이 당선되면서 문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는 매 작품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배태시켰으며, 화려한 문체와 다방면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 덕에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해왔다. 특히 그가 발표한 거개의 작품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고, 자신 또한 각종 문학상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작품에 정신적 고양 내지는 예술적 혼을 투영하고자 한 그의 적공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문단의 다른 쪽에서는 이문열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부조리한 세계'<sup>1)</sup>와 길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허무주의적'<sup>2)</sup>이고 '낭만적인'<sup>3)</sup> 성향 때문에 '당대의 시대(성)와 불화하는 아나키스

1)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김윤식 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146면.

2)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찾기」, 위의 책, 166-189면., 박일용, 「관념적 보수주의 이념의 서사적 구현」,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163면.

3)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 인식」,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8면.,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문학의 위족(2)』, 민음사, 1990, 96면., 김미옥은 「이문열 소설 연구-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트<sup>4)</sup> 또는 '보수주의자'<sup>5)</sup>로서의 면모를 작품에 구현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리얼리즘에 입각한 논자들은 그의 작품이 관념지향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sup>6)</sup> 이문열은 1980년대 군부독재와 그에 순응하는 대중을 동시에 비판해 주목을 받았고, 상류층의 부정부패와 부조리함을 비판하거나 페미니즘에 맞서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존엄함을 설파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sup>7)</sup>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인 『시인』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동하는 『시인』을 역사소설로 규정하고, 이문열이 김병연에 대한 설화의 세계를 소설의 세계로 새롭게 변용했다고 보았다.<sup>8)</sup> 유종호는 『시인』이 김병연에 관한 허구적 평전의 형태, 위장된 자서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작품이 현실성을 갖는 것은 작가의 문체 덕이라고 평했다.<sup>9)</sup> 박일용은 『시인』에서 김병연의 삶은 서술자의 관념적 추론과 논단이 배합된 형태

4) 김옥동, 「이문열과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 『이문열』, 민음사, 1994, 50면., 김성국, 「이문열과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사회와 이론』 (제28집), 2016년 5월, 172면.

5) 박일용, 앞의 글, 130-167면.

6) 유종호, 「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 김윤식 외, 앞의 책, 72면.

7) 『사람의 아들』(1979) 이후, 그가 비평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첫째 짧은 기간 동안에 탁월한 필치를 갖고 쓴 엄청난 양의 작품을 통해 독자를 끌어들이는 모멘텀momentum이 기성 문단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너무나 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추구한 작품세계가 무서운 80년대가 저물어 가도록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해왔던 이데올로기 중심의 리얼리즘 세계에서 벗어나 실존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깊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동, 「자아의 문학과 우의적 미학」, 『이문열』, 서강대출판부, 1996, 7면.

8) 이동하, 「설화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이문열의 『시인』」, 이문열, 『시인』, 동지, 1994(개정판), 246-282면. 이동하의 논지와 대비적으로 김옥동은 '작가는 아예 처음부터 역사소설을 쓸 의도가 없었다. 김병연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궤적일 뿐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술가로서의 그의 성장과정과 그의 문학을 통한 예술론이었다. 한 마디로 이 소설은 역사소설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계열의 소설로 범주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옥동, 「젊은 소설가의 초상」, 앞의 책, 371면.

9) 유종호, 「어느 시인의 초상」, 이태동, 앞의 책, 23-52면.

로 제시되고 있다<sup>10)</sup>고 했다. 김옥동은 『시인』이 이문열의 정신적 자서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자신의 내면 탐색이나 정신적 여정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sup>11)</sup> 장양수의 경우는 김병연의 50대 이후의 삶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쓰임과도 관계없는 스스로 자유와 충만을 주는 자족적인 것<sup>12)</sup>이라고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시인』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논자는 백승국과 권유리아를 들 수 있다. 먼저 백승국은 이문열의 소설을 ‘정념의 기호학’으로 분석했다. 그리하여 김병연(일가)이 조선후기 사회체제에서 배제된 채 소외감에 이르는 정념적 과정을 중심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각 인물들의 가치 박탈에 의한 좌절감, 소외감, 절망감, 체념 등이 나타나는 정념행로의 분석에 의해 작가의 실존주의적 작품 경향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권유리아는 김병연의 시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면 그의 주체성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모습은 사회적 주체→저항적 주체→허구적 주체로 변모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처럼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매개가 문학에서 민중으로, 다시 설화로 바뀌는 과정과 대응된다고 하였다.<sup>14)</sup>

기존의 많은 연구업적을 통해 이문열 문학의 성격은 낭만주의, 허무주의, 전망 결여의 이념 혐오, 역사적 결정론에 대한 투쟁과 가치상대주의로의 귀일歸一, 민중불신과 궁극적 체제 옹호, 관념 편향적 창작방법에 의한 능란한

10) 박일용, 앞의 글, 130-152면.

11) 김옥동, 앞의 글, 357-413면. 『시인』은 작가의 가족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웅시대』가 이동영을 비롯한 어른들의 세계를 다룬다면, 『변경』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에 남아 있는 그의 가족들이 겪는 삶을 다룬 것이다. 『시인』은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작가 자신의 삶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12) 장양수, 『이문열의 시인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7), 1997년 12월, 249-277면.

13) 백승국, 『이문열의 소설 시인의 정념 기호학적 분석』, 『한국학연구』(19), 2003년 11월, 71-98면.

14) 권유리아, 『이문열 소설과 이데올로기』, 국학자료원, 2009, 49-50면.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과 한계, 고급 부르주아문학의 기수 등으로 압축된다  
고 하겠다. 이문열 소설이 노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적, 형식적 특징을 개별  
적으로 추출해내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작가의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되  
어왔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시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인』은 이문열이 “내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기를 바라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있다”<sup>15)</sup>고 할 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그럴 만  
한 이유는 이 작품이 작가의 다른 소설적 특징을 두루 통합하고 있는 때문  
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작품과 작가의 전기적인 사실에만 과도하게  
주목하여 문학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랑시인 김병연이 경험했던 세계와 그 안에 형상화된  
노마드적 행적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창작의 태도와 시세계가 어떻게 영  
토화와 탈영토화를 이루는지 질 들뢰즈의 개념을 빌려와 살필 것이다. 김병  
연은 조선사회에서 계열화되고 영토화 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노마드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 ‘계열화’<sup>16)</sup>란 하나의 사물이나 사실이 다른 것과 계열  
을 이루면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시공간적인 선을 따라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문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김병연은 조부와 연  
결되는 계열을 이룬다. 이 계열화 때문에 연좌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조정의 감시를 받는다. 그래서 계열화 및 영토화를 벗어나기 위해 탈영토  
화를 꿈꾼다. 영토화란 ‘어떤 항을 자기 안에 포섭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  
는 것’이며, ‘어딘가에 끌어들이거나 귀속시키는 것’<sup>17)</sup>을 말하는데, 탈영토화  
란 이처럼 귀속되거나 머물렀던 영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sup>18)</sup>

15) 이문열, 『『시인』 동지판에 부쳐』, 앞의 책, 15면.

16) 이진경,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02, 58-59면.

17) 위의 책, 61면., 217면.

18) 형식을 부여받은 질료인 실체는 영토성과 결부되어 있고 걸 지층들 위에  
서의 탈영토화 운동 및 재영토화 운동과 결부되어 있다. 자신의 자율성  
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외부와의 우연적 관계들의 집합 속에

탈영토화를 지향하는 김병연은 리즘적 사유를 하고, '0'(空)으로 수렴'되어 가는' 세계에서 시를 쓰는 데 치중하게 된다. 리즘이란 중심 뿌리가 없이 다양체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 구조를 말한다. 나무는 땅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늘로 향하는 성장프레임을 갖기 마련인데, 리즘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서 분기되고 접속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19)</sup> 김병연은 가문의 뿌리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에, 리즘적 사유를 통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계열화와 영토화 거부에서 비롯한 방랑과 시 세계는 이와 같은 리즘적 사유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제로인 상태이지만 무無나 부재不在가 아니라 무언가가 흐르고 생성하는 잠재성 그 자체'<sup>20)</sup>인 '0'의 세계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2. 계열화와 영토화에 저항하는 노마드적 여정

『시인』은 잘 알려진바 김병연(김삿갓)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본래 이 작품은 이문열이 『세계의 문학』 겨울호(15권 4호, 1990년 12월)에 연재했는데, 내용을 보강하여 1991년 '미래문학'에서 단행본으로 초판 상재했다. 이 때 소설의 구성은 총 32장이었으나, 이후 1994년에 등지판版으로 새롭게 『시인』을 출간할 때에는 '미래문학' 초판본에 없던 『시인과 도둑』(1992년)을 『시인』 31장에서부터 33장에 삽입하여 총 35장으로 재구성했다.<sup>21)</sup> 등지판으로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래문학 판에서는 이

---

내어놓는 내부 환경을 더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더욱더 탈영토화 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110-111면.

19) 리즘은 어떤 근원적인 의미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채, 의미화의 계열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파생하는 줄기와 같다. 이진경, 앞의 책, 91-102면.

20) 위의 책, 207면.

21) 작가는 '초판과 달라진 게 있다면 단편으로 독립되어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시인과 도둑』이 제자리를 찾아 장편 속으로 돌아간 것과 약간의 가필'이라고 했다. 이문열, 앞의 책, 15면.

상적인 시세계만 추구하면서 방랑하는 김병연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등지판에서는 제세선생(구월산 도적떼 두령)과 만남을 통해 김병연이 시의 이상을 실천적인 방향으로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방향이란 도적떼의 행동이나 사고에 시적 감성과 이상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시인의 아들』(1990년)을 등지판 『시인』의 34장에 수록되었다는 점<sup>22)</sup>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문열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등지판 『시인』에 삽입할 때에는 약간의 변용을 거쳤으나 거의 원문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문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08년에 민음사版으로 『시인』을 다시 꾸린다. 이때에는 『시인의 사랑』이 추가된다. 『시인의 사랑』은 이문열의 『이문열 중단편집5』(등지, 1994)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 『시인』으로 엮으면서 작가가 묘사의 디테일을 추가하여 분량을 더 늘렸다. 『시인의 사랑』은 김병연의 말년을 보여주는데, 방랑길에서 산지기 딸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된 서사로 그려진다. 인과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번뜩이는 찰나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사랑과 헤어짐이라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가 말년의 서사로 그려진 것은 김병연의 역사적 팩트와 구분 짓기를 위한, 다시 말해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려 한 작가의 전략으로 보인다.

요컨대 『시인』은 네 편의 작품, 그러니까 『시인의 아들』(1990), 『시인』(1991), 『시인과 도둑』(1992), 『시인의 사랑』(1994)이 한데 모여 완성된 장편이라 하겠다. 이문열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써온 작품을 조립-재조립, 들뢰즈 식으로 말하자면 영토회와 재영토회의 차이나는 반복을 통해 『시인』을 완성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음사 판(2008)을 『시인』의 최종판으로 보고 분석텍스트로 삼았다.

『시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연의 조부 김익순이 ‘홍경래

---

22) 중요한 것은 미래문학 초판본에도 『시인의 아들』(1990)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인』을 쓸 당시 이문열은 연작 형태로 이 작품을 발표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난'에 가담한 후 역적이 되자, 그 일가는 조선후기 이데올로기의 체제로부터 감시와 처벌을 받고 배척당한다. 연좌제로 인해 김병연 일가는 피해를 보면서 끊임없는 이주를 지속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다 김병연은 급기야 가족을 등지고 진정한 초극의 시인이 되겠다고 방랑길에 오르고, 말년에는 산지기 딸과 잠깐의 사랑을 나눈 뒤 선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소략하게 정리했거니와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하고 분석해야 할 두 열쇳말은 궁극적으로 '방랑'과 '시세계'일 것이다. 왜 김병연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와, 긴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그의 시세계는 어떤 경지의 것을 말함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시인』의 경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다. 김익순은 흥경래의 봉기군에 잡혀 항복(순조 11년, 1811년)한다. 이에 조정으로부터 역적으로 몰려 금부로 압송되어 능지처참 당한다. 당시 다섯 살이던 김병연은 조부의 사건으로 인해 형 병하와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한다. 김병연 집안의 외거노비였던 김성수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아들 역할을 하며 산다. 그후 삼 년이 지나 아버지가 찾아오자 거처를 곡산에서 여주로, 다시 가평으로 옮기고, 가평에서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하자 평창→정선→영월 순으로 다시 이동한다.

어떤 곳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던 유년기의 삶.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묵은 상처처럼 그를 괴롭히던 옛 번성의 단편적인 기억들, 한마리 막다른 골짜기로 몰린 짐승처럼 과장된 피해의식에 쫓겨 다니던 어머니, 줄곧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며 살아온 듯 느껴지게 하던 열악한 삶의 조건들, 죄의 사회적 유전인자화로 나중에는 원죄의식까지 품게 한 연좌의 그늘, 단순한 순응을 넘어 고정관념에 가까워진 일반의 체제유지 감정과 하급기관의 타성으로 끊임없이 상기되던 체제의 복수심, 그리하여 나중에는 잠재적 폭력으로만 여겨지던 국가와 법, 철들어서는 거의 부재나 다름없었던 부성父性, 잦은 이주와 제도밖에 서의 배움에서 비롯된 포래들로부터의 고립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울려서 빚어낸 여러 가치박탈의 체험. 이러한 것들은 비록 한 시인을 길러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 감수성 예민한

영혼을 시인의 길로이끄는 자극으로써는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거처의 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병연 조부의 역모에 의한 연좌제<sup>24)</sup> 때문이다. 연좌제는 계열화 문제와 연결된다. 계열화란 사물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물이 다른 사물과 연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혈통으로 계열체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 안에 포섭되는 가문 내 종속된 자를 한데 묶어 처벌하기 때문이다. 조부의 행위는 국가적 초월성과 단일성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조선 이데올로기의 통합적 계열로부터 벗어나는 위법적인 행위라 하겠다.<sup>25)</sup>

세월이 흘러 김병연이 스무 살 때 영월 고을에서 백일장이 열리는데, 시제가 '가산 군수 정시의 충성스러운 죽음을 우러러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이름을 굽어 한탄하라'(73면)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조부의 역모를 꾸짖는 시를 지어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겁이 나, 수상을 포기하고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노진을 만난다. 조부와의 관계를 알게 된 노진은 김병연의 시를 놓고 효를 어겼다며 실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병연이 계열화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연이 썼던 '공령시'<sup>26)</sup>는 조선 체제에 저항하는 무기라고 봐야 한다. 가문과

---

23) 이문열, 『시인』, 민음사, 2008, 63면. 이하 작품 인용에 대한 표기는 본문에 면수만을 기재함. 인용자.

24) 혈통적 조직은 동일한 조상을 갖는 것을 통해 하나의 선분을 구성한다. 선분이란 시작과 끝이 명확한 선, 그래서 시작한 점을 통과했다면 이 선분의 끝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전 선분과 구별되는 것, 복잡적이고 이질적인 삶의 흐름을 이처럼 명확한 끄트머리를 갖도록 절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분이다. 이진경, 앞의 책, 657면과 이진경,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2, 391면을 참조바람.

25) 국가는 도적떼나 활빈당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서 벗어나고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떤 영토가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고자 물리력을 동원한다. 이진경, 『노마디즘 2』, 위의 책, 306면.

26) 공령시는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조선) 고유의 시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허경진, 『동시품회보와 허균의 과체시』, 『열상 고전연구』(제14권),

혈통, 계통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시로 활자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병연은 심기일전하고 과거시험을 보러가지만 그 제도의 부정함을 목격하고 절망한다. 그러다 세도가인 안응수를 만나 문객생활을 하지만 김좌근에 의해 자신의 실체가 발각되어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본격적인 떠돌이 생활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금강산이다. 여기서 김병연은 취옹을 1차로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시인의 삶'을 배우게 된다. 다음으로 다복동을 찾는데, 이곳에서 원명대를 만나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조부의 행동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한다. 이때부터 김병연은 조선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시스템으로부터 스스로 탈영토화 하기를 꿈꾸며 본격적인 방랑길에 오른다. 이후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민낯을 날것 그대로 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다보니 옥설이나 음담패설이 시에 드러나고, 풍자와 해학 기법을 동반한 시가 탄생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방랑길에 오른 김병연은 구월산으로 향하던 중, 제세선생에게 붙잡혀 시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재영토화된다.<sup>27)</sup> '전쟁기계'라 할 수 있는 도적떼와 함께 지내면서 그 무리에게 시를 소개한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조정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투지를 갖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절을 시로 읽어내는 낭만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도적떼가 권력의 무리와 싸우다 패배하자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떠난다. 그들에게는 시보다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고도의 싸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병연의 구월산 활동은 재영토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재영토화란 원래 영토가 아닌 다른 영토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거나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이라는 영토에서 감시와 처벌을 받았던 김병연이 조부를 부정하는 시를 쓰고 떠돌다 구월산에 자리를 잡고 생활한 것은 재영토화라고 볼 수 있다.

---

2001, 102~104면을 참조 바람.

27) 이진경, 『노마디즘 1』, 앞의 책, 217~218면. 영토화란 어딘가에 끌어들여 거나 귀속시키는 것이다. 반면 탈영토화란 귀속되거나 머물렀던 영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재영토화는 다른 영토에 머물거나 귀속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세선생에게 시의 무용함을 듣게 되고 다시 길을 떠난다. 탈영토화가 시작된 후 지천명에 이르렀을 때, 금강산에서 취옹을 다시 만난다. '스스로 시가 되어' 살고 있는 취옹에게 김병연은 다시 한 번 시적인 영감을 받는다.

그런데 김병연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도 하동 땅에서 아들 익균과 만났 적이 있다. 이때 익균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가는 아버지를 붙잡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희끗희끗 멀어져가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시인일 뿐이었다. 세상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시인일 뿐이었다. 어느 새 주막사립문을 벗어난 아버지는 풀숲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이내 자취가 사라졌다. 나무가 되었거나 돌이 되었거나 꽃 하얀 짙레덩쿨이 되었거나 혹은 짙어지기 시작하는 새벽안개가 되어...라는 생각이 들자 익균은 아직 못 뺏어낸 만류의 말을 얼른축원으로 바꾸며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님. 부디 당신의 시 속에서 내내 평안하고 넉넉하십시오.'(242-243면)

익균은 아비인 김병연을 가족의 경계 안으로 영토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김병연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0'의 세계로 가고자 한다. 김병연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이 과정은 '자기-동일적인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확고한 것에 뿌리박거나 확실한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뿌리가 아니라 리즘을 선호하고, 정착이 아니라 유목을 강조하며, 관성이나 중력에서 벗어나는 편위를 강조하는 것'<sup>28)</sup>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김병연은 숫자 1로 압축되는 단일한 세계로 계열화되는 것을 부정하고 0으로 향하고자 한다. '0'은 결코 결핍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와 앞잡이로서의 충만한 몸체의 긍정성을 표현'<sup>29)</sup>하는 것이다. 곧 '0'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적인 것들로 꽉 찬 상태라 하겠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움으로써 가득 채우는 득도의

28) 이진경,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2, 33면.

2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69면.

삶을 김병연이 가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삶,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탈영토화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노마드적 노정에서 획득한 진리라 하겠다. 이러한 노마드를 선택함으로써 김병연은 지속적으로 생성의 삶을 역설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그의 삶은 인프라노마드의 노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정치 망명객이 인프라노마드에 포함<sup>30)</sup>된다. 김병연은 정치 망명객으로서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되레 생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자크 아탈리에 따르면 ‘인류는 여행을 통해서 태어나며, 인간의 몸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노마디즘에 의해 형성된다’<sup>31)</sup>고 한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김병연은 떠돌이라는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켰다고 봐야 한다. 조선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조부에 의한 연좌제 처벌이 그를 계열화에서 벗어나게 한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유랑 시작詩作의 형태로 드러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자연이라는 0의 세계를 궁구하는 삶의 태도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3. 탈영토화로서의 리즘적 사유와 ‘0’의 세계

이문열이 김병연 설화를 소설로 변용하는 데 성공했던 비결은 그의 일대기에 대한 문헌이 부족한 덕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종호는 ‘문헌 부족

30) 자크 아탈리는 노마드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인프라노마드, 정착민, 자발적인 노마드가 그렇다. ‘인프라노마드’는 어쩔 수 없이 노마드가 된 이들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주거지가 없는 사람, 이주 노동자, 정치 망명객, 경제 관련 추방자, 트럭운전수나 외판원과 같은 이동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크 아탈리, 이효숙 옮김, 『호모 노마드-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418면을 참조바람.

31) 위의 책, 19면.

은 역설적이게도 구속 없는 상상 작용을 매개로 해서 국외적 개인의 삶을 더욱 진진하고 풍요하게 만들어줄 편안한 가능성<sup>32)</sup>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김병연이 방랑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얻은 시적 영감에 대한 것이며, 그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궁극적인 시 세계에 대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문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케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아무나 문을 읽고 쓸 수가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고도한 인간정신의 결과물인 지식과 학문을 다룰 줄 안다는 것과 같다. 김병연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이라는 무기를 배우기 위해 어릴 적부터 온갖 천대와 굴욕을 이겨낸다. 서당에서 문의 활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랑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김병연은 그 문 덕분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관서인 노진, 덕소의 안응수, 다북동의 원명대, 구월산의 제세선생, 금강산의 취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김병연의 삶에 방향 전환을 꾀한 인물이자, 일종의 '사건'이기도 하다. 노진을 통해서는 충과 효의 중요성을, 안응수를 통해서는 시의 오락성과 대중성을, 원명대를 통해서는 조선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식과 민중들의 삶을, 제세선생을 통해서는 시의 목적성과 그 한계를, 취옹을 통해서는 경계없음의 시세계를 익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옹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낸 시세계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형식과 유비된다고 하여 노장사상의 '도'<sup>33)</sup>로 해석되어왔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시란 실용적인 장르가 아니고, 시 그 자체만으로 무언가가 충족되는 것, 그리하여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시이자 시인이 되는 장르임을 김병연이 깨달았다고 보았다. 이 노정을 통해 김병연은 시란 실천성보다

32) 유종호, 『어느 시인의 초상』, 앞의 책, 26면.

33) 대표적으로 이동하(『설화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 이문열의 『시인』, 앞의 책)와 김일렬(『근대적 예술가 정신과 중세적 예도사상』, 류철균 편, 앞의 책)의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는 예술 그 자체의 경지, 시 그 자체로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임을 깨닫는다.

그를 시인의 길로 인도한 것은 공령시 덕이다. 김병연은 스무 살에 영월 고을에서 백일장에 나가 장원을 한다.

당신은 임금을 저버렸고, 부모도 잊은 사람.  
한 번 죽어 가법소. 만 번 죽어야 마땅하오.  
춘추의 필법이 어떤지는 알겠지요.  
욕된 그 일, 이 땅 역사에 길이 남아 전해질 거외다.(80면)

김병연은 시제를 보며 충과 효 사이에서 갈등한다. 충을 우선시하면 조부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야 하고, 효를 우선시하면 시제와 관련한 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신분상승을 하려면, 곧 조선사회에 재영토화 되려면 조부를 향한 비난의 시를 써야 한다. 이때 김병연은 조선의 시스템이 원하는 내용의 시를 써서 재영토화 되고자 한다. 그것이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는 행위이자,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기에 이같은 선택을 한다.

그런데 주막에서 만난 노진은 “수신은 치국의 바탕, 수신은 효를 거치지 않고 치국의 충에 이르는 길은 없소. 그게 대성大聖의 가르침이었소”(86면)라며 김병연을 꾸짖는다. 왜냐하면 유교는 조선시대의 해계모니를 장악했던 국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문의 대표에게 가부장권을 부여해 주고 국가 권력을 대리하여 가정의 통치를 위임’<sup>34)</sup>한 것이기에 그러하다. 노진은 김병연의 시가 가문을 부정한 것이자 국가의 통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여긴다.

또 한 번의 재영토화는 세도가 안응수의 집에서 시도된다. 김병연은 공령시 사건 이후 안응수의 후원으로 지낸다. 그의 도움으로 과거급제를 하여 양반이라는 계열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좌근에 의해 자신의 정

34)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16면.

체가 탈로나면서 김병연은 스스로 안응수의 집에서 나온다. 여기서 느꼈을 '소외와 가치 박탈의 체험'<sup>35)</sup>은 그를 예술가로 성장하게 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원명대와의 만남을 통해 시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원명대는 김병연에게 홍경래 난의 대의를 설명해주고, 조부 김익순의 행동이 제도와 법 아래에서는 죄가 되지만 진실 면에서 보면 의인이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해준다. 이때부터 김병연은 시를 쓰는 데 있어 파격과 변조를 시도하고, 운율도 무너뜨리고, 백성의 한글까지 시 속으로 가져온다. 예컨대 '靑松듬성듬성立, 人間여기저기有'(176면)처럼 한자와 한글을 섞어 칠언시를 쓰기도 한다. 시 안에 화려한 수사와 유유한 감정을 전개하는 대신, 재치와 기지를 우선시해서 기교를 집어넣게 된다. 그의 시 주제도 조선사회의 닫힌 구조를 통렬히 비판하거나, 민중의 울분과 한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전환된다.<sup>36)</sup>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병연의 시적 변화는 조선시스템의 기계적 노예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행위라 하겠다. '기계적 노예화란 인간이 그 자체로 인간 상호 간에, 혹은 인간과 다른 것들과 함께 구성되는 기계의 구성요소가 될 때, 그리고 상급 단위의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게 될 때, 기계적 노예화'<sup>37)</sup>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김병연은 하나의 계열로 이루어진, 조선사회에 배치된 기계 부품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시 생산에 힘쓴다.

“시를 생산했다고?”

“선생 같은 분에게 시 그 자체가 바로 생산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그러나 꿈도 생

35) 김옥동, 『젊은 소설가의 초상』, 앞의 책, 366면.

36) 원명대와의 만남이 있는 지 수년 뒤에 그가 다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은 분명한 성장 혹은 발전의 성격을 갖는다. 김병연은 스스로 기성의 체제와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아웃사이드가 되어, 아내와 자식을 가난과 고독 속에 유기해버리고 말았다. 이동하, 『설화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 -이문열의 『시인』, 앞의 책, 263면.

3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876면.

산이 되고 기대도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시도 생산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시도꿈과 기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찌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소. 꿈과 기대 외에 다른 감정들도.그런데 그같은 감정의 생산에는 시도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소.”(209면)

김병연은 구월산 제세선생에게 붙잡히면서 재영토화 된다. 제세선생과 김병연은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쟁을 하는데, 김병연이 시는 ‘생산’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자 제세선생은 김병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때부터 구월산 도적떼는 시를 읊조리며 세상의 이치를 따지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시 활동은 부자와 탐관오리를 죽이는 용감성을 이끌어내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 이제 자네에게 시는 무엇인가?”

(중략)

그의 시는 여전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잘못을던지 시 꼬집는 도구이며, 부부의 법도를 밝히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게 하고, 인륜을 두터이 하며, 교화를 아름답게 하는 수단이고, 그 비유로써 다른 비슷한 것을미루어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풍속의 성하고 쇠함을 살피고, 서로 그 안에 모여품성을 갈고 닦으며, 또한 그것으로 윗사람의 다스림이 그릇됨을 나무라는 그 무엇이였다.

(중략)

“하오면 어른신네의 시는 어떤 것입니까?”

“제 값어치로 홀로 우뚝한 시. 치자治者에게 빌붙지 않아도 되고 학문에 주눅이들 필요도 없다. 가진 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못 가진 자의 증오를 겁낼필요도 없다. 옳음의 자로써만 재려 해서도 안 되고 참의 저울로만 달려 해서도 안된다. 홀로 갖추었고, 홀로 넉넉하다.”

(중략)

“그렇다면 그 시인은 시로 무얼 얻습니까?”

“오직 시詩다. 그것으로는 벼슬도 생기지 않고 공명도 오지 않고 재물도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한 구절만으로도 셋 모두를 갈음할 수 있는 게 바로시다.(138-140면)

위에서처럼 취옹을 만난 후 김병연의 시세계는 생성 차원으로 나가게 된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자타의 구분이 모호하며 모든 것의 경계가 애매한 세계 속에서 사는 법을 추구한다. 곧 세상에 속하면서도 그곳에 속하지 않는 주체를 만들고, 일상어로 시를 쓰는 것에서 일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시를 쓰는 것,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분리되는 삶,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지를 통해 시선詩仙에 오르는 것, 이것이 방랑에서 얻은 시 창작의 궁극적 단계라고 하겠다. 오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만이 사물의 온전함, 그 원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시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가 지니고 있는 목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숫자 1에서 0으로 되어가는 것, 특정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리즘처럼 중심이 없는 사유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나 무, 부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생성이 되는 세계, 텅 빈 시공간이 아니라 짙찬 시공간으로 세계를 재구성해보는 것이 말년에 추구했던 김병연의 창작태도라 하겠다.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분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김병연이 추구한 시의 세계라 하겠다. 이것이 리즘적 사유와 연결된다고 하겠다. 리즘은 접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두 항이 등가적으로 만나서 제3의 것을 생성하는 것이다. 접속은  $A+B=C$ 처럼 이질적인 두 항이 만나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리즘적 사유란 귀일歸一이 아니라 생성에 초점이 맞춘 사유다. 그런데 조선사회 이데올로기에서는 유교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공맹사상에서 말하는 시정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0의 세계보다 1의 세계를 그린 시가 더 추앙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는 삶을 교

38)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접속과 이접과 통접을 구별한다. 접속은  $A+B=C$ 처럼 이질적인 두 항이 만나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접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통접은 여러 가지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리즘은 생성과 관련하여, 이접과 통접보다 접속에 그 원리를 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경, 『노마디즘 1』, 앞의 책, 91-94면을 참조바람.

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참다운 도덕적 완성자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 즉 도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을 지닌다. 또한 '시는 도를 실현시키는 수단, 달리 말해 '문재도론'文載道論으로 이해'된다. 『시경』의 시를 엮은 공자도 '생각함에 간특함이 없는 시, 인간의 성정을 정화시키는 시, 세상과 인간을 교화하는 시를 강조'<sup>39)</sup>했다.

이러한 덕목을 강요했던 세계에서 영도화된 시인들은 오로지 하나의 철학으로 귀일되는 시를 써야만 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시를 양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미 배태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김병연은 시 세계를 바꿈으로써 세계와의 길항관계에서 얻어낸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도 재정립한다. 리즘적 사유가 여기서 비롯한다. 리즘은 하나로 규정된 일차 중심을 제거하고 내재성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내재성이란 '관계에 따라 어떤 것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사유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재성 속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본질, 내재적 본질이 없으며, 다만 다른 것과의 관계에 따라 접속한 이웃과의 관계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sup>40)</sup>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립되고 파산하는 모델, 끊임없이 확장되고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sup>41)</sup>인 것이다. 리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곧 김병연을 움직여온 현실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선천으로부터 비롯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무너진 가문에 대한 연민과 억울함의 정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유목민에게는 역사가 없다'<sup>42)</sup>는 것처럼 스스로 유목민이 되어서 역사와 조상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것이 작품의 결미에 가서는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도가적인 모습으로

39) 오세영, 『문학과 그 이해』, 국학자료원, 2003, 343-344면.

40) 이진경, 『노마디즘 1』, 앞의 책, 120면.

41)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46면.

42) 위의 책, 757면. 보충설명을 하자면 유목민들의 삶에는 모든 사건들이 귀착되는 어떤 중심이나 고정점이 없다. 삶이 운동하는 행보를 따라 흘러가듯이 사건도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목민에게는 역사가 없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사건들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연결하는 어떤 해석도 남기지 않는다. 이진경, 『노마디즘 2』, 앞의 책, 408-409면.

나타난다.

아들 익균 또한 아버지인 김병연의 시를 통해 새로움을 경험한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면 주변에 꽃이 피어 있고, 구름이 유유하다고 하면 없던 구름이 생기고, 잉어가 한가롭다고 하면 잉어가 생기는 것을 본다. 익균이 보지 못했던 자연을 김병연은 시적 문장으로 찾아준다. 김병연이 쓰는 언어는 아들에게 자연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계시로서의 역할도 한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자연의 일부인 김병연은 물론 익균도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시인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지각하여 그것의 의미를 각지覺知했느냐에 따라 세계는 규정된다고 하겠다. 곧 존재는 그 자리에 있으나, 시인이 존재하는 것을 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43)</sup>

또한 익균은 김병연이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경험한다. 익균 자신과 현재적으로 같이 있지만 자연의 일부처럼, 마치 풍경처럼 형체가 모호해지는 김병연을 보게 된다. 자연과 '나'가 명확히 구분되는 1의 세계가 아니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0'으로 향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규정할 수 없거나 규정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0의 세계로 향하는 아버지를 익균은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

시로써 유명해지나 시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해서 스스로 떠돌이를 선택하고 방랑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꾀했던 김병연은 시스템이나 제도처럼 계열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버림으로써 탈영토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sup>44)</sup>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의 논리와 맞싸우기

43) 하이데거에 있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면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현존하게 하는 매개이다. 존재는 언어를 통하여 개시되며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론적 통로는 오로지 언어밖에 없다(M.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 편역, 경문사, 1979, 16면).

44) 세속적인 인간사나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서구낭만주의의 예술가상이던 동양 예도의 이상적 모습이건 간에 아주 익숙한 것이다. 준엄한 자기 비판이나 결벽증 때문에 자기작품을 없앤다든가 혹은 출판을 금한다는 것 또한 세속 멸시의 도통한 예술가를 싸고 도는 구비口碑의 하나이다. (유종호, 『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 앞의 책, 61면.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삶의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이문열의 『시인』에 나타난 탈영토화의 양상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시인』에 형상화된 김병연(김삿갓)의 노마드적 행적, 그리고 김병연이 추구했던 창작의 태도와 시-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김병연이 방랑했던 이유는 조부에게서 비롯된 연좌제 때문이었다. 가문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에 포섭되면서부터 김병연은 조선의 감시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숨겨야 했고, 양반사회로의 진출을 도모하나 과거제도의 폐단을 목도하면서 방랑길에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지만 조선 시스템에 영토화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탈영토화의 떠돌이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의 '떠돌'은 조선이 세운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니와 조부로부터 이어진 혈연관계, 즉 계열화를 부정하기 위한 응전의 한 행태였다.

탈영토화는 김병연에게 자유로운 시 세계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동력이 되었다. 조선사회 제도가 야기한 대역죄에 대한 응징, 신분차별, 과거제의 폐단, 감시와 처벌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것은 결국 시를 향유하는 상류층의 구미와 비위만을 맞추는 격으로 격하되기에, 이를 거부하고 과감히 탈영토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김병연이 깨달은 것이다.

결국 김병연은 자신 스스로를 자연 풍경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0'으로 수렴하는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했다. 하나로 규정된 세계를 부정했기에, 종국에는 가족마저도 버리고 유랑을 했던 김병연, 시로써 유명해지나 시 때문에 조선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해서 떠돌이를 선택하

고 방랑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꾀하면서 제도를 거부하며 살았던 비운의 주인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 이문열, 『시인』, 미래문학, 1991.  
이문열, 『시인』, 동지, 1994.  
이문열, 『시인』, 민음사, 2008.  
이문열, 『아우와의 만남-이문열 중단편집5』, 민음사, 2016.  
이문열, 『이문열 중단편집집 출간 기념 수상작 모음집』, 민음사, 2016.

### 2. 국내외 논문 및 저서

- 권유리아, 『이문열 소설과 이데올로기』, 국학자료원, 2009.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김윤식 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찾기』, 김윤식 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김미옥, 『이문열 소설 연구-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성국, 『이문열과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사회와 이론』(제28집), 2016년 5월.  
김옥동, 『이문열과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 『이문열』, 민음사, 1994.  
김옥동, 『젊은 소설가의 초상』, 『이문열』, 민음사, 1994.  
김일렬, 『근대적 예술가 정신과 중세적 예도사상』, 류철균 외, 『이문열』, 살림, 1993.  
박일용, 『관념적 보수주의 이념의 서사적 구현』, 류철균 외, 『이문열』, 살림, 1993.  
백승국, 『이문열의 소설 시인의 정념 기호학적 분석』, 『한국학연구』(19), 2003년 11월.  
오세영, 『문학과 그 이해』, 국학자료원, 2003.  
유중호, 『능란한 이야기 숨씨와 관념적 경향』, 김윤식 외 『이문열론』, 삼인

- 행, 1991.
- 유종호, 「어느 시인의 초상」, 이태동, 『이문열-현대문학의 새로운 해석9』, 서강대출판부, 1996.
-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문학의 위족(2)』, 민음사, 1990.
-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 인식」,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 이동하, 「설화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 이문열의 『시인』, 이문열, 『시인』, 둥지, 1994.
-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 이태동, 「자아의 문학과 우의적 미학」,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진경, 『노마디즘(1-2)』, 휴머니스트, 2002.
- 자크 아탈리, 이효숙 옮김,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 질 들뢰즈, 김상환 김재인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장양수, 「이문열의 시인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7), 1997년 12월.
- 허경진, 「동시품회보와 허균의 과체시」, 『열상 고전연구』(제14권), 2001.

【Abstracts】

## A Study on the De-territorialization in Lee Mun-Yeol's Novel *The Poet*

Gwak, Sangin

This paper focused on the aspect of de-territorialization in Lee Moon-yeol's *The Poet*. I focused on Kim Byeong-yeon's infranomad behavior, which was shaped in *The Poet*, and how Kim Byeong-yeon's attitude of creation and poetic world view changed. First, Kim Byeong-yeon was repeating 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in order to escape from the surveillance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Despite winning the poetry test, he was forced to continue moving because of his grandfather's sins. His 'wander' is a challenge to the powerful ideology established by the Chosun Dynasty, as well as a response to denying the blood relations and affiliation that led to his grandfather.

De-territorialization has become a driving force for Kim Byeong-yeon to create a free world of poetry. He wrote poetry in harmony with the system, which was only to match the upper class, so he refused and dreamed of de-territorialization. In the end, Kim Byeong-yeon was able to be free through the Risible thinking that constantly escapes from the line of semantics, without going back to any fundamental meaning or origin, and was able to move to the poetry world of '0' in the potential of

something.

Keyword : poet, mise en séries, territorialization, deterritorialization, rhizome, nomad.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